

광주는 혼자가 아니었다...진실 알린 '전국의 5·18들'

김의기·김태훈 등 알려지지 않은 127명 열사 기리는 첫 전시회 39주년 맞아 5·18기록관에서 6월6일까지...전국 순회전시도 계획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전국에서 '5월 광주'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다 세상을 등진 127명의 영령을 기리는 전시회가 처음으로 열린다.

'전국의 5·18들'이라는 주제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5·18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아 기획됐다.

전시는 에필로그 '전국의 5·18들 80년대 주요 민주화운동'을 시작으로 ▲80년대 주요 민주화운동 시대별 흐름 ▲시기별 민족민주열사들 ▲시기별 알려지지 않은 '5·18진상규명시위'들 ▲열사가 마지막 남긴 말들 ▲열사에 남기고 싶은 말들 ▲전국의 민족민주열사묘역, 민주화운동기념공원 소재 ▲포토존 ▲전체 열사 소개 영상 등으로 구성됐다. 전시기간은 2일부터 6월 6일까지다. 월요일은 휴관이다. 기록관측은 전국 순회 전시도 계획중이다.

전시의 주제인 '전국의 5·18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서 열사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불어준

명칭이다.

이번 전시는 1980년 5월 27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알리며 오월의 영령으로 산화한 열사들과 그들의 행적을 기록했다. 127명의 열사들을 '전국의 5·18들'이라는 이름으로 한 자리에서 부르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18민주화운동의 발생지인 광주에서조차 두려움에 떨며 언급하기 어려웠던 그날을 서울·부산·대구·대전·춘천 등 전국 각지에서 소리 높여 알려줬다는 사실은 5·18항쟁 이후 광주는 외로운 섬이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전국의 5·18들'이 없었다면 광주의 진실이 전국으로 알려지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기록관측의 설명이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 광주·전남 연대회의 자료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외친 희생자는 모두 16명이며, 이들을 포함해 5·18민주화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민족민주열사는 모두 127명에 달한다.

5·18민주항쟁과 관련해 전두환 정부에 항의하는 '동포에게 드리는 글'을 남기고 종로 5가 기독교회관 6층에서 투신 사망한 서강대생 김의기 열사, 1981년 5월 27일 '전두환은 몰러가라'를 외친 뒤 투신한 서울대생 김태훈씨 등 나이·직업·성별을 불문하고 떠나간 127명의 열사들이 이번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대중과 마주한다.

기록관측은 모든 열사의 얼굴을 전시회에 담고 싶었지만, 18명은 영정사진조차 구하지 못해 회색 빛 빈칸으로 남겨뒀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이덕재 학예연구사는 "5·18진상규명을 외친 희생자와 관련한 연구·자료 등이 종합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이 부분에 관한 연구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를 총괄한 나익갑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관장은 "1980년대 광주를 알렸던 '전국의 5·18들'이 없었다면 광주도 없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번 전시 기간 중 박래전 열사의 친형인 박래군 사람인권재단 소장이 발표 자료 나서는 광주정신 포럼이 9일 오후 3시 기록관 2층 다목적강당에서 열린다.



2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개막한 '전국의 5·18들' 기획전시에서 이덕재(오른쪽) 학예사가 5·18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산화한 전국 민주화 열사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다음달 6일까지 5·18기록관 3층 상설전시실에서 진행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의붓딸 살인사건' 친모 "범행 동조했다" 자백

"남편에 당할까봐 무서웠다" 진술 친모가 친부에 성추행 신고 요구

재혼한 남편과 함께 자신의 중학생 딸을 살해한 혐의를 부인해오던 친엄마 유모(39)씨가 범행을 자백했다.

2일 광주동부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이를 전 긴급체포된 A(13·중학교 1학년)양의 친엄마 유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유씨는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혐의 일체를 시인하면서도 "나도 (재혼한)남편에게 당할까 봐 무서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동안 남편 김모(31)씨가 단독으로 딸을 죽였다고 주장해온 유씨는 전남 자청경찰청에 심야조사를 자청한 뒤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인정했다.

유씨는 남편 김씨와 함께 지난달 27일 오후 5시 30분께 무안의 한 농로에서 중학생인 딸 A(13)양을 승용차 안에서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 당시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젓먹이 아들과 본인까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무서웠다"고 진술했다.

이들 부부는 A양을 죽이기 전 13개월된 아들을 데리고, 2주 가까이 남해, 통영, 등해

등 전국 여행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가 전국 여행에 나선 날은 A양과 A양의 친부가 목포경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한 지난달 9일 직후였으며, 최종 도착일정은 범행 하루전인 지난달 26일 목포였다.

일각에선 이번 여행은 김씨가 딸과의 성범죄에 회개한 아내 유씨를 달래기 위한 것으로, 여행 도중 자신의 추악한 성범죄 책임을 A양에게 떠넘기는 과정에서 A양의 살해 등을 공모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그동안 알려졌던 "A양이 계부의 성추행을 친부에게 말했다"는 사실과 달리, 친모 유씨가 A양의 친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성추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도

록 요구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계부 김씨의 휴대 폰에서 A양과 주고 받은 음란물을 발견한 유씨가 당시 딸과 함께 지내던 친부에게 전화를 해 '딸 교육 잘 시키고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했다"면서 "지난달 9일 유씨의 전화를 받은 친부는 곧바로 112에 신고한 뒤 같은날 오후 6시에 딸(A양)을 데리고 목포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남경찰청으로부터 A양 살인사건을 넘겨받아 조사중인 광주동부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자신을 성범죄자로 지목하고 경찰에 신고한 A양에게 복수하고자 살인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자백을 한 상태"라면서 "또 다른 살인배경이 있는지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재직증명서·통장 위조...개인회생 브로커 일당 적발

광주지검, 7명 기소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건을 불법 수임하고 법원 제출용 자료를 위·변조한 '개인회생 브로커' 일당이 적발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허정)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이모(48)씨 등 법조 브로커 3명을 구속기소 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와 법무사, 브로커 사무실 직원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7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무자격으로 총 339건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수임해 수입료 7억여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개인회생 자격을 얻고 변제금

액을 줄이기 위해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거나 통장 거래내용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변조해 법원에 제출했다.

개인회생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은 변호사 1명과 법무사 4명에게 매달 300만~500만원을 주고 빌렸다.

이들은 서울과 전주 등 2곳에 사무실을 두고 광주 등 전국의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했으며, 이들이 제출한 서류를 이상하게 여긴 광주지방법원측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달미를 잡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월 이씨를 구속기소 했으며 이씨와 함께 일하다가 독립한 브로커와 서류 위·변조 업무를 담당한 사립, 명의를 빌려준 법조인들을 추가로 기소했다.

강진 컨테이너 창고 화재...잠자던 50대 숨진 채 발견

강진의 한 컨테이너 화재 현장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2일 새벽 5시20분께 강진군 강진읍의 한 농가 옆에 설치된 컨테이너 창고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난 컨테이너에선 숨진 A(55)씨가 발견됐다. 불은 내부 18㎡와 생활용품 등을 태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진화됐다.

담양에서 근무하는 A씨는 근로자의 날(5월1일)을 맞아 농사일을 하기 위해 해당 컨테이너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컨테이너 내부에 설치돼 있는 전기시설에서 불꽃 현상이 있었다"는 주민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인을 조사하는 한편 A씨를 부검할 예정이다.

아내와 성관계한 지인 갈취 3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한 지인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30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공갈 방조 혐의로 기소된 아내 B(38)씨는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평소 알던 재력가에게 접근해 "내 아내와 성관계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1억4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남편의 사주를 받고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 재력가에게 "남편과 싸워서 집에 가기 싫다"고 유혹해 성관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차 가로막고 연락도 안돼"...주차된 차에 훗김 '김치 세례'

○...차량을 빼주지 않는다며 김치통을 들고 나와 해당 차량에 김치를 뿌린 50대 남성이 경찰서행.

○...2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41)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30분께 광주시 서구 농성동의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B(52)씨의 차량 본넷 위에 짐을 싣고 나온 김치를 뿌렸다

손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의 차량이 장시간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고 있는 바람에 외출을 할 수가 없었다"면서 "차량에 있는 전화번호로 수차례 연락을 해도 연결이 되지 않아 순간 화가 났다"며 선처를 호소.

1566-9988

J16 40 point 8 5 1

J10 20 point 1 6 5 2 4

J8 14 point 6 8 2 4 7 5 8 1

J7 12 point 2 5 1 6 4 9 7 8 3

J6 10 point 1 3 0 7 5 8 4 9 2

J5 8 point 2 4 6 3 7 1 2 8 0

J3 6 point 4 6 2 8 1 0 9 7 3

J2 5 point 2 7 6 2 1 4 9 0 2

J1 4 point 4 5 7 8 9 0 1 2 3 4 5 6 7 8 9 0

J1* 3 point

돋보기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 노안수술 시 돋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극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옛. 밝은광주안과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CMTECH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